



■ 혼종문화론

— 근대성에 들어가고 나오기 위한 전략

김 용 규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문화』(1989)는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대표하는 저작 가운데 하나다. 파리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6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멕시코 메트로폴리탄 자치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칸클리니의 문화횡단적 삶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광범위한 내용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모든 위대한 저작들이 그러하듯, 『혼종문화』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요동친 라틴아메리카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그 시대적 현실에 개입하고 있는 책이다. 동아시아가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발전에 도취되어 서구적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은 권위주의 이후의 시대, 즉 민주화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보다 냉정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식에서 지식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론적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을 둘러싼 쟁점이었다.

이미 저발전의 발전을 톡톡히 경험한 바 있는 그들에게 신자유주의는 라틴아메리카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점진적이고 진화론적인 ‘발전’에 근거한 근대성이 환상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이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근대의 미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도 진행

돼야 하는 ‘미완의 기획’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미완일 수밖에 없는 기획’임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상당수 지식인과 문화연구자는 전통과 근대성, 근대성과 탈근대성 간의 단절을 전제하는 서구적 근대성을 비판하고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전근대적 계기, 근대적 계기, 탈근대적 계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잡종적이고 혼종적인 근대성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칸클리니의 『혼종문화』가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근대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심문하고 그것을 새롭게 개념화하는 작업이다. 우선 칸클리니는 ‘탈근대성 이후의 근대성’을 주장한다. 즉 그는 1980~90년대 많은 지식인들과 달리 탈근대성을 서구적 논리를 좇아 이념이나 가치로 예찬하기보다는 그것을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을 반성하기 위한 성찰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근대와 전통, 고급문화와 민중문화, 헤게모니 집단과 하위집단이라는 마니교적 이분법에 근거했으며, 특히 이런 이원론이 라틴아메리카 근대성을 서구 문화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한편, 민중문화를 억압하고 권위주의적 정권과 그 문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서구적 논리에 근거하여 전통문화와 지역 문제의 일소를 부르짖는 근대화론자나 발전론자의 주장에 맞서 라틴아메리카를 “(다양하고 불균등한) 전통과 근대성들의 더욱 복합적인 절합”으로, “개별국가들에 다양한 발전 논리들이 공존하는 나라들로 구성된 이중적인 대륙”으로 규정하고 이 이중성을 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근대주의의 반진화론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혼종문화』가 두 번째 목표로 삼은 것은 근대성에 대한 이러한 사유를 통해 혼종문화라는 독특한 문화적 전략을 구성하는 일이다. 주목할 것은 칸클리니가 혼종성이나 잡종적인 혼종문화 자체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2001년 신판의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그는 혼종성 자체보다는 혼종화하는 문화적 과정에 역점을 두고자 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빈부간의 극복 불가능한 격차와 음성적 경제체제의 확산, 고인플레이션과 고실업률, 많은 이탈집단의 속출 등 엄청난 피해와 격변을 겪고 있었다. 그 속에서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는 국내외의 다국적 자본에 의하여 지배받게 됐지만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통문화는 소멸되기는커녕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형됨으로써 더욱 호황을 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칸클리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문화의 가능성을 엿본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전통문화가 시장의 지배에 더욱 종속되는 것을 뜻하기도 했지만, 칸클리니가 볼 때, 그것은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는 고급문화, 민중문화, 대중문화를 분리함으로써 불평등을 조장한 기존 구조의 해체를 탄식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불평등은 민중적이고 잡종적인 혼종문화 속에서 그 동안 지배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해체모니를 영속화하기 위한 “종교적·정치적·민족적·인종적·예술적 근본주의”를 상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연구의 과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지배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술발전과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새로운 가능성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혼종문화와 이종교배의 메커니즘을 누가 장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가능성을 초국적 기업의 수중에 넘겨주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적 파워를 방어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사실 칸클리니가 혼종성이 아니라 민중적이고 잡종적인 혼종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이후 전통적 혁명의 성소는 사라지고 이제 시장만이 남게 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에서 혼종성이 기능하는 방식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것을 민중들의 민주적 훈련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그의 혼종문화론이 호미 바바와 같은 탈식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혼종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2011년이라는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혼종문화』는 한계도 많은 책이었다.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한정된 지면이므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칸클리니의 혼종문화가 갖는 특이한 것은 그것이 인종에 기반을 둔 혼종문화론과 거리를 두면서 문화의 혼종과 잡종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 점이다. 이 점은 혼종문화를 보다 역동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칸클리니의 고민을 반영한 중요한 성과이면서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향후 보다 첨예해질 문제인 인종과 그와 관련된 원주민 운동의 문제를 간과하는 한계가 된다. 억압된 것은 되돌아오는 법이다. 칸클리니의 『혼종문화』에서 이 문제는 억압되거나 근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전근대적 의미만 갖고 있는 전통의 문제로만 남는다. 혼종문화의 다양한 계기들은 그것들이 조우하고 혼종하면서 수평적 민주화의 가능성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라틴아

메리카의 현실 속에서 권력관계의 물질성을 갖고 있으며 그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종종 섞임과 융합이 그러한 권력의 물질성을 억압하고 간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현실에서 근대성이 얼마나 식민성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는 이미 상식이 됐다. 그런 점에서 칸클리니의 근대성에 대한 반성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칸클리니의 혼종문화론의 두 번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칸클리니에게 시장은 거의 피할 수 없는 막다른 현실이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던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사파티스타 운동, 브라질의 토지점유 운동, 콜롬비아의 원주민 운동가 에바 모랄레스의 대통령 당선 등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요동치는 현실은 칸클리니가 전제하고 있는 시장의 범위를 뛰어넘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구성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칸클리니의 『혼종문화』는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의 현실보다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상실한 채 시장과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현실을 삶의 기본 매트릭스로 삼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뚫고 나올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추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칸클리니의 혼종문화 자체를 넘나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필자는 2000년 초 이 책의 일부 번역을 시도했고 저작권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어떤 사정으로 번역에 이르지 못했다. 이성훈 선생님의 성실하고 꼼꼼한 전문적 번역은 필자의 그러한 아쉬움을 털어내 주기에 충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